

3000번 넘는 인공관절치환술 성공

달려라병원

달려라병원은 '2022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LG트윈스 공식 협력병원인 이곳은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은 물론 진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력 면에서는 3000번이 넘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성공한 데다 로봇 장비로 정확도를 높였다. 작년 12월에는 독일 임플란

트캐스트와 로봇인공관절수술 국제교육센터 지정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달려라병원은 의사들이 직접 쓰는 손편지로 유명하다. 퇴원하는 수술 환자에게 담당의가 수술 경과와 환자 상태, 수술 후 주의사항, 격려 메시지 등을 담은 편지를 전달한다. 얼마 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운을 입은 소년' 영상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진의 일상을 담은 영상은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지 기자



'7존 시스템'으로 독립 쿠션 효과 구현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바디프랜드의 프리미엄 라텍스 침대 라클라우드는 제품의 생산, 봉제, 포장 등 전 공정을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행한다. 7년산 고무나무 원액만을 사용해 만든 100% 천연 라텍스에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더했다.

매트리스는 고무나무 원액을 판형에 그대로 부은 뒤 통으로 짜내는 '통몰드' 방식으로 제작돼 상하좌우 어느 쪽에서도 온몸을 세밀하게 받쳐준다. 탄성과 복원력이 좋아 모션베드(전동침대) 각도 조절 시에도 쉽게 구부러지고 퍼지는 장점을 갖췄다. 또 매트리스 표면의 수천 개 에어홀이 통기성을 원활하게 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를

7곳으로 나눠 지탱하는 '7존 시스템'으로 옆 사람의 움직임이 전달되지 않는 독립 쿠션 효과도 구현했다. 천연소재의 항균력으로 인해 세균 번식 가능성도 낮췄다. 배동주 기자



필터 자가 교체로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리

바디프랜드 'W정수기'

바디프랜드가 만든 W정수기는 필터를 자가 교체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관리가 가능하다.

필터는 3개월 주기로 보내준다. 전문가가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필터를 간편하게 갈아 끼우면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W정수기는 6단계 필터를 하나로 합쳤다. 녹 찌꺼기와 일반 세균·살모넬라균·슈퍼박테리아·노로바이러스 등을 99.99% 제거한다.

정수 성능 및 용출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4대 미네랄을 함유했다.

내부 직수관 등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위생적이다. W냉온정수기 브레인코어는 곡선형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정수기 정면 폭이 16.8cm로 좁은 주방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W정수기 관계자는 "안심할 수 있는 정수 기능과 직관적이고 편의성 높은 디자인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28억 봉지 팔렸다... 41년째 국민 스테디셀러

해태제과 '홍린볼'

해태제과의 '홍린볼'은 부드러운 수속에 달콤한 초콜릿을 담은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수 과자다. 가벼운 식감과 진한 초콜릿 맛으로 41년째 명실상부한 '국민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프로야구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1981년 한국 프로야구(KBO) 출범과 함께 출시한 홍린볼은 오랜 기간 야구장 공식 과자로 불려왔다. 전국 야구장과 인근 마트 내 판매율 1위로, 야구장 구내 매점에 홍린볼 전용 판매대가 있을 정도

다. 총 판매량은 28억 봉지로, 전국 프로야구 경기장 9곳을 팬스 높이까지 5번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누적매출은 1조 7000억 원 규모다.

홍린볼은 오리지널과 그릭요거트, 티라미수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3월 논산 특등급 딸기로 만들어 봄 시즌 한정으로 출시한 '논산딸기'는 출시 한 달 만에 완판 기록을 썼다. 그리스에서 직접 공수한 요거트로 만든 '그릭 요거트', 진한 커피향을 살린 '티라미수'도 오리지널과 함께 주력 제품으로 꼽힌다.

이슬기 기자



최첨단 도수치료 기술로 수면장애까지 해결

티앤아이 '가누다'

티앤아이의 기능성 베개 '가누다'는 물리치료 기법의 고급 기술인 도수치료가 적용됐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똑바로 누웠을 때는 바른 자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누다 베개의 주요 소재인 메모리폼 '텐세그리티폼'은 독창적인 특허 기술로 수면 부족,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는 현재 국내 대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주목받으며 해외로 성장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최대 메모리폼 브랜드 '까르마'까지 인수하며 기능성 베개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티앤아이의 까르마가 보유한 독자적인 메모리폼을 소재로 더욱 발전된 기능성 베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티앤



아이 관계자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은 가누다 베개이지만, 까르마의 독보적인 소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금융권 최초 통합 멤버십... 생활금융플랫폼 진화

하나금융그룹 '하나머니'

하나머니는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 금융거래와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국내 금융권 최초 통합 멤버십 서비스다.

기존 '하나멤버스'에서 '하나머니'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하나금융그룹 금융 소비자만의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디지털머니를 기반으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하나머니는 쿠팡캐시·카카오페이·OK캐시백·엘포인트 같은 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쌓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무료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머니를 쉽고 간편하게

적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은 하나머니는 송금·결제·ATM출금 같은 방식에 활용에 현금처럼 쓰면 된다.

하나머니 담당자는 "올 상반기 그룹 관계사 핵심 서비스와 연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글로벌 특화 서비스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우 기자



100억 이상 자산가에 금융집사 서비스 인기

신한은행 '신한PWM'

신한PWM은 은행과 증권을 한 자리에 모아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복합점포 모델이다.

신한은행은 2011년 금융권 최초로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신한PWM을 시작했다. 신한PWM은 현재 고액 자산가를 관리하는 'PWM센터'와 PB와 IB를 결합한 'PIB센터', 소수정예 초고액 자산가 대상 '패밀리오피스센터'로 나

뉘어 있다. 이 가운데 패밀리오피스는 올해 2월 선보인 금융자산이 100억원을 넘는 초고액 자산가 대상의 금융 집사 서비스다.

단순 자산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가문·기업 별 생애주기에 맞춰 1대1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 기관 투자자 영역이었던 클럽딜 투자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신한PWM은 대면위주 자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솔(SOL)PB'를 운영 중이다. 유진우 기자



알아서 재료감지... 116만대 팔린 초고속 블렌더

해피콜 '엑슬림'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기업 해피콜이 선보인 초고속 블렌더 '엑슬림' 시리즈는 2015년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량 116만대를 기록했다. 누적 매출은 4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3월 말 해피콜이 선보인 신작 '스마트 엑슬림 시그니처'는 알아서 재료를 감지하는 국내 최초 특허 기술 '스마트 블렌딩'이 적용된 제품이다.

컨테이너에 재료를 넣고 본체 전면의 S(스마트) 버튼을 짧게 터치하면 단단한 사과부터 무른 딸기까지 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알맞게 블렌딩 해준다.

'스마트 엑슬림 시그니처'는 '엑슬림' 시리즈 가운데 최고 사양인 1400와트(W), 1초당 544회 초고속 회전하는 3만2000RPM(엔진회전수) 등의 사양을 갖췄다. 빠른 속도로 재료를 미세한 입자 상태로 분쇄한다.

해피콜은 그동안 성능과 디자인을 높여 다양한 '엑슬림'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이신혜 기자



'구로의 기적' 쓴 명실상부 최대 패션 유통단지

마리오 아울렛

국내 최초 정통패션 아울렛인 마리오 아울렛은 유명 브랜드의 품질 좋은 상품을 365일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합리적 쇼핑명소'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2001년 1관을 시작으로, 2012년 3관까지 문을 열며 패션 아울렛 타운을 완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폐허 같았던 구로공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패

션 유통단지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이 지역의 현재 하루 평균 유통 인구는 30만명에 달한다.

마리오 아울렛에는 현재 6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2018년 전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쇼핑 뿐만 아니라 오락, 여가, 문화, 식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도심형 아울렛 최초로 닭과 토끼들이 함께하는 작은 동물원과 같은 복합 체험형 콘텐츠도 보강했다. 권오은 기자

